

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제가 공부한 장소는 위치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었고 수업 후에 식당가나 상점들이 모여있는 시내까지 가는데도 거리상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규모 또한 작지 않다고 느꼈습니다.</p> <p>다만 아쉬운 점은 다른 투숙객과 함께 지내야했고 우리 학생들의 방들이 한 층에 있었지만 한 부분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있어서 다른 투숙객들이 우리가 지나다닐 때 약간의 소음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방의 방음이 잘 안되어 그런 이유도 있고 우리 학생들의 부주의도 있지만 전화도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연락을 위한 왕래는 필수였는데 이에 학생들의 방의 위치배정이 조금 아쉽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저희는 단어와 리딩 수업을 1on1으로 그리고 토익스피킹과 멀티미디어 수업 그리고 face 2 face 수업을 그룹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선 문법이나 단어외우기 등과 같이 이론적인 내용은 수업했으나 직접 말하거나 사용해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는데, 1대1 수업과 그룹수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배운 영어 지식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p> <p>다만 리딩과 단어 수업할 때 책 선정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어와 리딩 책이 충분히 좋은 책이지만 그 책의 내용들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학습하고 배워왔던 내용들이라 조금은 식상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피킹 능력과 실제 대화에서 쓰이는 패턴들을 배우고 싶었고 이걸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니 바로 다음 수업부터 회화 패턴 책을 가져와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와 이 점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모두 친절하고 유익한 수업을 만들어주셨습니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요트투어(2/1)</p>

	<p>요트 한 대를 빌려 우리 학생들이 함께 타고 바다에서 수영도 즐길 수 있었다. 점심으로 요트 상에서 햄버거와 치킨을 먹은 것도 정말 좋았다. 추가비용은 없었고 기억에 남을 만한 투어였다.</p> <p>-Mt.Samat(2/9)</p> <p>필리핀 유명 역사 유적지인 Mt.Samat을 방문했다.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가는 동안 힘이 들었지만 목적지에 올라가선 주변 풍경은 물론 바다까지 볼 수 있어 좋았다. 역사에 관련된 퀴즈도 진행하여 좀 더 집중하여 트립을 즐길 수 있었다.</p> <p>-Water Park(2/18)</p> <p>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워터파크에 가는 것이 조금 걱정되었지만 걱정할 필요 없었다. 다들 재밌게 즐기고 바다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워터파크라 모두들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준비물은 수영복과 수건 그리고 갈아입을 옷이 있으면 좋았다.</p> <p>모든 필드트립에 추가비용은 없었고 밖에 외출할 때는 선크림을 꼭 바르는 것을 추천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현지 기후는 무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았습니다. 연수가 마무리 되어가는 2월 말쯤부터 낮에 햇빛이 강해지니 부디 이때만 더위에 유의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p> <p>또한 수업하는 강의실이 가끔가다 추울 수 있으니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긴팔 겉옷이 있다면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처음에 필리핀에 총기가 허용된다는 것을 듣고 안전에 대해 걱정했지만 제가 생활하면서 위험했던 적은 없었습니다.</p>
숙소	<p>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좋은 풀장과 넓은 산책로를 가지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식당, 카페테리아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맛도 좋고 만족했</p>

	습니다.
교통	<p> 시내교통 관련</p> <p>제가 머물던 곳에서 시내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 다른 학생들과 같이 FB나 택시를 타고 인당 약 20페소에서 많이 내면 50페소(한국 돈으로 500원에서 1200원 정도)를 내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한인마트나 퓨어골드나 로얄같은 마트와 스타벅스를 가려면 15분정도만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저녁 식사비	400,000	저녁식사+간식비용
카페	50,000	
기념품	50,000	
교통비	30,000	
항공세	14,000	
합계	544,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p>수업을 마친 뒤 저녁을 센터 밖에 나가서 자주 먹고 싶다면 한국돈으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달러로 환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달러로만 환전한 뒤 필리핀에 와서 쓸 정도씩만 하버포인트 2층에 위치한 Xchange 환전소에서 환전하면 좋습니다.</p> <p>혹여나 생각이상의 소비로 연수 마지막 주에 돈이 부족할 수 있으니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를 하나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p> <p>생활면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수업 받는 중에 중앙 에어컨 때문에 조금의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긴팔을 두세 개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p> <p>생활하는 곳에 드라이기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챙겨가는 것이 좋고 멀티탭이 있다면 좀 더 편리한 생활 할 수 있습니다.</p> <p>그리고 현지 핸드폰 통신사는 SMART를 이용할텐데 4주 프로그램이라면 500페소짜리 주황색카드 하나 사서 매주 120페소 짜리 요금제 충전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과 달리 선불 요금제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120요금제를 이용하면 같은 SMART통신사끼리 전화문자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첫날 투어를 이끄는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실 것입니다.</p>

6. 본인 소감 및 평가

<p>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p> <p>필리핀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 생활이나 기후에 대한 큰 거부감이나 낯센은 없었습니다. 어학연수로 만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순천향대학교 학생들 모두 좋았고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p> <p>처음 평일 매일 8시간동안 영어 수업을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었지만 하루하루 선생님들과 친밀감을 쌓고 생활에 적응해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니 영어에 대한 실력과 자신감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한국에서도 필리핀 어학연수를 통하여 배운 영어 말하기 실력과 자신감 잃지 않고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여 훗날 더 멋진 영어 실력을 갖고 필리핀에서 만난 선생님들을 다시 찾아가 만나는 것이 저의 작은 꿈입니다.</p>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p>첫 번째 주말 액티비티로 요트투어를 즐기는 사진입니다.</p>	<p>센터 근처에 위치한 수빅베이 해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p>



팀을 이뤄 진행한 팀게임 사진입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컨셉을 정하고 복장을 입고 금요일 수업에 참여합니다. 복고 컨셉으로 FunFriday에 참여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주말 액티비티로 Mt.Samat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마지막 액티비티로 워터파크에 방문한 사진입니다.